



투쟁은 즐겁게...가면쓰고 사장 출근저지

박정찬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연합뉴스 노조가 29일은 새로운 투쟁 방식을 선보였다. 캐릭터 가면을 쓰고서 사장실 입구를 가로막아 선 것.

이날 조합원 130여명은 오전 8시30분부터 가면을 쓰고 7층 사장실 앞에 집결했다. 일반 가면에서 '슈렉', '스크림', '오페라의 유령', '브이 포 벤데타', '파워레인저' 등의 캐릭터 가면, 나비 가면 등 다양했다.

오전 9시8분에 도착한 박 사장은 조합원들의 가면투쟁에 무표정한 얼굴로 공병설 노조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접수했다니까 나하고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성명은 기본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성기준 전무는 "아침마다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며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은 해야 된다"며 출근저지 투쟁을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박 사장은 공 위원장과 마주 보고 서 있다가 "더 할 얘기는 없고?"라고 물은 뒤 3분 만인 9시11분 성 전무, 장익상 상무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 노조는 내일엔 트레이닝복, 다음주 월요일엔 후드티를 입고 출근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색다른 출근저지 투쟁을 제안한 집행부 한 조합원은 "전날 김미화씨 강연에서 즐거운 파업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속되는 출근저지 투쟁을 즐겁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취지



를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출근저지 투쟁이 끝나고 7층 복도에 줄지어 앉아 파업 영상에 담은 장면을 촬영했다. 사내 몸짓패인 '용감한 사원들'이 주축이 돼 제작하고 있는 영상은 30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언론노조 콘서트 '장물환수 대작전'에서 상영된다.

차지연 조합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사회부 차지연 조합원(2011년 입사)이 <2012 겨울, 쪽방> 연재기사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제258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차 조합원은 한 달 동안 쪽방에서 먹고 자면서 쪽방촌 사람들의 생활과 애환을 들여다보고서 지난달 초 14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를 송고했다.

<2012 겨울, 쪽방> 기사는 지난해 12월 "쪽방에 살아보고 기사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사건팀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차 조합원은 "지금 아니면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이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쪽방에 들어갔다고 한다.

차 조합원은 지난해 12월29일 용산구 동자동의 5.5㎡ 크기의 쪽방에 월세 24만원을 주고 들어갔다. 전기장판을 제외하면 별다른 난방시설도 없는 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틈틈이 쪽방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길거리에서 군고구마와 과자를 팔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삶에 한발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썼다. 그러는 사이 쪽방촌 사람들과 점점 친해져 술취한 아저씨들과 함께 성인나이트클럽에 간적도 있다고.

쪽방에서 생활한 한 달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추위나 배고픔이 아니라 '기자가 온다고 뭐가 바뀌냐'는 주민들의 불신이었다. 특히 언론을 조

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연합뉴스를 더 더욱 좋아하지 않았다.

차 조합원은 지난

9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촛불문화제'에서 '연합뉴스 찌라시 기사가 한 달이나 쪽방촌에 살았을 리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 댓글을 소개하며 "다시는 연합 찌라시 기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토해 조합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차 조합원과 함께 생활했던 쪽방촌 주민 4명이 문화제에 참석해 차 조합원을 응원하기도 했다.

차 조합원은 수상 소식을 듣고 "회사 선배들과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파업 중이라 조금 안타깝다"며 "빨리 출근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쪽방촌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해 뿌듯했다"라며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투쟁을 통해 어서 대국민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미화 지지방문...

"연합뉴스 노조의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선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노조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가 연합뉴스 노조를 방문해 공정보도와 회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이번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의 정을 나눴다.

김씨는 28일 오전 9시 회사 8층에서 조합원 150여명과 만나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면 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겠느냐"며 "국민들이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으니 그 힘을 믿고 가면 된다"고 연합뉴스 파업의 취지에 공감했다.

그는 "연합뉴스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연합뉴스가 쓰면 다른 기자들이 다 따라 쓰는데 이런 회사가 파업하다니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응원했다.

이어 김씨는 "사측이 노조 와해 작전을 펼치겠지만 그럴수록 더 단결해야 한다"며 "돈을 못 벌면 불안함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절벽을 향해 가는 거센 물결처럼 대차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KBS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고소를 당하고, 외압 논란 속에서 MBC 라디오에서도 하차한 김씨는 당시의 고통과 극복 방법을 회고하며 노조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씨는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힘들 때, 이혼을 하거나 방송국에서 잘렸을 때 항상 사람들과 의논했다.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파업이 아닌 즐거운 파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트위터와 모든 퍼포먼스를 이용해 노조가 푹푹 뭉쳐 이렇게 힘든 파업을 이렇게 즐겁게 헤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퍼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경찰 조사가 개시될 무렵 연합뉴스 기자가 가장 먼저 취재해 전 언론사에 영향을 미쳤던 인연을 소개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씨의 지지방문은 한 시간 동안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공병설 위원장의 제안으로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금 지방취재본부는 투쟁중

인천취재본부 조합원 4인4색 투쟁기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조합원은 4명. 비록 조합원 수는 적지만 모두 일당백의 마음가짐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출입처의 홍보실장과 계장들이 본부 조합원들에게 “연합뉴스 기자가 기자실에 없으니 마음 한 구석이 텅빈 것 같다”는 문자를 매일같이 보내오고 있지만, ‘그 빈 구석, 이제 공정보도로 채우겠습니다’라는 답문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두바이 특파원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인천 본부로 복귀한 강종구 조합원은 “한국의 겨울 날씨가 아직 적응이 안 돼 무척 춥다”며 파업 기간 목도리를 두른 채 여러 출입처를 돌며 파업 취지를 알리는 데 열심이다.

또 파업 이후 똑같이 월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본부 조합원의 만행답게 후배 조합원들과의 음주가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본부 대의원 최정인 조합원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을 오가며 대의원으로서 파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본가가 서울 목동이지만 굳이 인천을 오가며 본부 노조원들도 손수 챙긴다.

파업 기간 ‘사원의 경고’로 데뷔한 사내 몸짓패인 ‘용감한 사원들’의 멤버인 배상희 조합원은 대학 시절 연극 무대를 주름잡던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배 조합원은 “최근 동기들과 함께 파업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면서 “금요일 언론노조 부산 집회는 뉴욕 브로드웨이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활동에 기대를 모으게 했다.

본부 막내인 손현규 조합원도 오는 30일 부산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손 조합원은 고향이 부산이어서 공짜 노조 버스를 타고 귀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생활이 빠듯한 것은 맞지만 투쟁이 우선이다”고 밝혀 무임 승차 논란을 일축했다.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한 배 조합원과 손 조합원은 파업기간 틈틈이 ‘짜깁기 투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지난 28일 인천의 한 대형 영화관에서 1시간 가량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구석구석 - 통합뉴스국

※연합뉴스 노조가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해 벌인 파업이 조합원들을 한 데 묶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차례 진행된 총회나 전체 모임에서 각 부서 조합원들의 처지를 들어볼 기회가 마련됐다. 연합뉴스가 언론사이기에 기본적으로 기자직이 돋보이지만 기사란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데엔 보이지 않은 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스미고 있다. ‘연합뉴스 구석구석’이란 코너를 통해 연합뉴스의 숨은 주역들을 소개하고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번 파업에 새 얼굴들이 등장했다.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통합뉴스국 콘텐츠총괄팀 조합원들이다.

사내 민주화가 역행했다고 지적하고 박정찬 사장의 퇴진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일손을 놓았다.

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회사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와 처우 등이 알려지고 개선되길 바라는 소망도 있다. 이들은 “우린 연합뉴스도 아니고 뉴스Y도 아닌 ‘반달’ 같은 느낌”이라며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달’은 ‘범죄와의 전쟁’이란 영화에서 건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라 극중인물을 지칭한 말이다.

콘텐츠총괄팀 조합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뉴스Y로 인사가 났고 조직이

나뉘었는지를 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단, 뉴스Y의 분사를 막으려고 인력을 통신에도 잡아놓았다거나 저작권 문제때문이라는 이야기만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다.

뉴스Y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처우 격차도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연봉뿐 아니라 초과근무수당(OT) 등 수당에서도 격차가 있다고 말한다.

올해 초 회사에서 ‘협업TF’를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점을 말했고 당연히 이 정도의 처우 개선은 이뤄질 줄 알았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보도 문제도 이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

가장 적합한 그림인데도 “이런 그림은 쓰지 마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출연자 섭외를 놓고도 ‘코드’가 안 맞는다며 약속된 출연을 ‘핑크’내야 했던 경험도 있다.

‘차별화된 방송’을 주문하면서도 막상 새로운 기획안에는 격려 대신 인력과 제작비를 이유로 접자고 하는 관리자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느낀다.

이들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이런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느끼고 있다.

더 많은 사원이 근무하는 뉴스Y 콘텐츠센터의 고용 구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영상취재·편집 인력 상당수가 비정규직 사원들인데 2년 계약 기간이 다 가온다면서 “비정규직만 사원만 많이 양산시켜 놓고 장기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 역시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합뉴스가 바로서기 위한 출발점은 박 사장 퇴진이라고 말한다.

조합원들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개선도 공염불이 될 테니까요”라고 입을 모았다.

◆ 통합뉴스국은...

통합뉴스국은 연합뉴스가 멀티미디어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자 변화해 온 노력의 산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보도 채널 진출 등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부서 개편 과정에서 치우쳐야 할 문제점도 있다.

통합뉴스국의 뉴미디어부는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 등 웹 공간에서 연합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뉴미디어부 소속 퍼스널미디어팀에선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 등 최근 급부상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연합 콘텐츠 확산에 힘

쓰고 있다. 그래픽뉴스팀은 도표나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해 어려운 사안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눈에 들어오는 뉴스’를 만들고 있다.

정보에서 다양한 의미를 뽑아내고 이를 흥미로운 포맷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미디어랩도 통합뉴스국 소속이다.

미디어랩은 하나의 원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해 사용한다는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즈’ 개념을 빌려 정보를 다양한 포맷으로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랩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보인 트리맵과 뉴스맵, 인터랙티브 뉴스 등은 사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PD팀과 CG팀, 편집팀, 영상취재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센터는 방송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서다. 연합뉴스 소속이지만 뉴스Y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존 영상뉴스부가 콘텐츠센터로 개편되면서 일부 사원은 뉴스Y로 재입사했고 일부는 남았다.

뉴스Y에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같은 기능을 하는 콘텐츠센터가 있어 통신과 방송으로 다른 소속의 사원들이 사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송을 만들고 있다.